

2025년 뉴스웨이 윤리강령 세미나 회의록

일시: 2025년 11월 25일(화)

장소: 뉴스웨이 회의실

참석자: 황의신 대표, 홍은호 편집국장, 윤철규 국차장, 이성인 디지털콘텐츠부장,
차재서 팀장, 이윤구 기자 (총 6명)

■ 요약

- 자체 윤리강령 전면 도입 및 실무 가이드라인 확정
-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 AI 활용 기준 및 교차 검증 절차 마련
- 외부 규제 의존 탈피 및 원칙 중심의 자체 데스크킹 시스템 구축

■ 세미나 주요 내용

1. 신규 윤리강령 실무 적용 및 자체 규제 강화

- 신규 4개 조항(알권리, 정보 수집, 취재원 보호, 디지털 윤리)의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책 논의
- 외부 위원회 심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, 뉴스웨이만의 고도화된 자체 규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
- 관행적인 정보 취득 방식에서 탈피하고 취재 초기 단계의 팩트체크 필요성 강조

2. 디지털(AI) 윤리 가이드라인 점검

- 디지털 콘텐츠 전반을 담당할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, 해당 조직을 전사적인 디지털 윤리 대응 체계의 구심점으로 삼기로 결의
- 해당 센터 주도하에 숏폼, 카드뉴스 등 AI 프로그램 활용 빈도가 높은 제작 현장에 최적화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추진

- AI 생성물 사용 시 출처 표기 방식(워터마크 등)을 구체화하고, 제작 결과물에 대한 기자의 최종 책임 원칙 재확인
- 트래픽 확보 목적의 자극적인 썸네일 및 선정적인 제목 활용을 지양하고, 투명하게 검증된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필터링 프로세스 도입 논의

3. 보도 적용 사례 논의 및 올바른 데스크킹 원칙 재확인

- 편집 과정에서 데스크 개인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부서별 공통 데스크킹 기준 수립
- '취재원 보호'와 '정보 투명성'이 상충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, 취재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데스크 보고를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확립
- 단순 오탈자 수정을 넘어 중요 내용 및 사실관계 변경 시, 독자에게 '기사 수정 이력'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도입 검토
- 2026년 1월 신규 입사자 필수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언론윤리 교육 정례화 추진

(정리: 이윤구 기자)